

#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관련 연구\*

## A Study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ractice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Contents

이은희\*\*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現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Lee, Eun Hee\*\*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practice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contents(classifying them into four units; choice and dressing of clothes, textile and management of clothes, design and sewing of clothes, and knitting and embroidery) in their real life. This is the investigation of 344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Choongchungnam · bukdo, Junrabukdo, and Daejeon.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se data were verified by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more university students hav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he more they have practice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content in their real lif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al awareness of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correlation of variables differed significantly. As a conclusion,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actice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contents in their real life. These results would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improving students' critical practice.

Key words :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Practice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Contents

## I. 서론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1999).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정적인 틀에 매여서 세상을 보는 사람에 비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기보다 대등하게

도와주고 배려하는 남성과, 나약하지 않고 책임감과 독립심, 결단력이 강하며 성취 지향적인 여성은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가정과 교육은 생산의 영역에 대비되는 '사적' 교육으로 여성에게만 필요한 교과로 여겨져 왔다(한명희 외, 1991). 특히 의생활 교육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점차 많아지므로 학교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높았다(이금남, 1993; 임애용, 1994; 임애용, 윤인경, 1994; 이금남, 김행자, 안영희, 이남기, 1996). 의생활 교육내용 중 바느질하기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인식하여

\*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신진우수연구자 지원사업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Tel: 063) 850-6589  
E-mail : ehlee@wonkwang.ac.kr

의복제작 및 생활용품 만들기에서 남학생들이 바느질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운성숙, 이진숙, 199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은 가정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해 높지 않았다.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이고 기능중심 위주로 인식하였으며,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 또한 제공되지 못하였다.

의생활 교육이 여성만을 위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일차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가정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성역할이 성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성에 의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연계시켜 단순화시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은 이론과 대별된 개념으로 실제의 손으로 해보는 실습이나 실생활에의 활용, 또는 유용성의 개념에 국한하지 않는 비판의식을 지닌 실천을 의미한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실천은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력을 갖게 하므로 의생활 교육에서 실천의식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의식을 조사해봄으로써, 대학생의 자신의 성에 근거한 차별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한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 말은 남녀가 지니는 비본질적인 특성, 즉, 능력, 기질, 성격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것의 의미하며, 남녀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즉, 성의 차이가 우열로 인식되지 않고 새로운 관계, 생산적인 단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춘, 왕석순, 1999).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의미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 또는 성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부, 1999). 첫째, 양성평등을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으로서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양성평등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종식으로 보았다. 이것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은 이러한 성 위계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양성평등은 남성과 비교해볼 때, 여성이 지니고 있는 차이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남성은 여러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한시적이거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Colker, 1987; Young, 1990; Vogel, 1993; 김재춘, 왕석순, 1999).

이제까지 양성평등교육은 주로 '같음으로서의 평등'의 의미를 전제로 하면서, 성차별이나 성편견 없는 교육의 의미로 남녀평등교육과 혼용되어왔다. 양성평등교육은 양성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에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한다(인천광역시 교육청, 2001).

김재춘과 왕석순(1999)은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한 교육'과 '양성평등의식교육'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양성평등한 교육'은 교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활동에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양성평등의식교육'은 양성평등한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재건에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양성에 평등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교육'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정적인 틀에 매여서 세상을 보는 사람에 비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980년대에는 성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소수의 자녀화,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및 여성 재혼율의 증가, 여성 가구주나 여성 독신가구의 증가와 같이 여성의 생활양식에서 꾸준한 변화가 있어왔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지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통계청, 2002; 황은, 2004).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여 왔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의식은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남성적이 아니면 반드시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남성과 여성들 모두에게 억압적인 사고체계이다. 남녀의 행동을 뚜렷이 구분 짓는 성역할 규범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좀 더 융통성 있고 서로의 힘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켰다. 과거 우리의 교육은 음양의 원리에 입각한 자연법칙, 즉 천도(天道)를 따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차이에서 남녀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조선시대에 강조된 여성교육은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수행에 따른 행위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이었다(조경원, 1996).

정해숙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여학생과 남학생은 서로 다른 성역할 의식, 즉 여학생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여전히 보다 가부장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역할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2004)에 의하면, 여성들은 사회생활에서 72.4%, 직장 69.1%, 가정 40.9%, 학교생활에서 32.9%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들은 '성차별이 있다'는 인식에서 여성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들도 사회생활에서 66.8%, 직장 65.2%, 가정 35.0%, 학교생활에서 29.5%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역할 부담론'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사회적인 의미로 재구성하여 성역할을 차별화시키고 성역할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가정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대는 이러한 이

분법적인 성개념에서 벗어나 성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기에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교과가 바로 가정과 교육이며, 가정과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교육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Houston(1985, 1994)은 성중립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즉, 교육내용에서 생기는 성별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성을 무시해 버리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성인지적 관점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 교육의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성을 고려함으로써, 교육의 과정이나 성취 등 교육결과에서의 성별 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가치와 여성 특유의 관심이 과소 또는 왜곡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경험 세계를 교육과정에 통합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남을 지배하기 보다는 대등하게 도와주고 배려하는 남성과, 나약하지 않고 책임감과 독립심, 결단력이 강하며 성취 지향적이며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여성이다. 이러한 인간상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상과 남성상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교원들의 재사회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의미있는 교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의생활교육

과거 남녀 모두에게 대등하게 직업적으로 자수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감추어지고 우아하게 바느질하는 여성들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부각시켜 강조하였다(김수경, 1998).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까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많은 그릇된 관념과 믿음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그릇된 관념과 믿음을 전통적 관습과 사고방식의 전달체계가 강한 가정에서보다는 양성평등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교육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양교육이라는 고정된 인식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자리 잡아 가정과교육을 남녀 양성에게 균등히 이수시켜야 한다는 교

육 방안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이은정, 신상옥, 1992).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정과 교육은 양면적 두 가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상반된 성과를 얻게 되었다. 남녀에게 동일한 교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남학생에게도 가정과목을 이수시키게 된 성과를 얻은 반면, 여성을 가사노동자로 규정하여 전근대적인 가치를 가진 여성으로 가치화시키는 교과라는 왜곡된 이미지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왕석순, 2000).

가정 내의 역할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왔던 전통 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가정과 교육이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생활인으로서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가사활동과 작업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학생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여학생에게서만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것은 고정관념의 유지 또는 변화가 인지적 발달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는 사회적 관례 수용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유가효, 1994; Stoddart & Turiel, 1985).

가정과 교육은 1992년에 고시한(시행은 1995년 신입생부터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내용의 남녀 평등의식 함양을 강조하여 남녀 공통과목으로 전환하였고,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4). 기술과 가정교과의 통합여부는 제4차 교육과정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5,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적어도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형식적 요건에서만 양성평등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정과 교육, 특히 의생활 교육에서는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균형을 이루며 동시에 지닌 인간인 양성성 인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여러 상황에서 성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능하고, 융통성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발달수준 및 창의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과 교육에서 양성평등 관련 연구(김재춘, 왕석순, 1999; 왕석순, 2000; 정해숙, 2003; 배은주, 이송자, 2005)

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나마 의생활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위주로 구성해 온 가정과 교육, 특히 의생활 교육을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모두 학습할 기회를 지녔던 일부지역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실생활에서 비판적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앞서 제시하였던 의생활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서 벗어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한국여성개발원(1999)과 정해윤(2001)에서 제시한 한국남녀 평등의식 검사의 총 80문항 중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총 35문항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의  $\alpha$  계수로 산출한 결과  $\alpha=0.91$  이었다.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가정과목에 제시된 의생활 교육내용 즉,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박일록, 이은희, 2003a; 박일록, 이은희, 2003b; 이은희 2003)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문항구성은 의생활 교육내용을 영역별로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26문항(의복의 선택과 착용 9문항, 의복의 재료와 관리 6문항,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6문항, 편물과 자수 5문항)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의  $\alpha$  계수로 산출한 결과, 각각  $\alpha=0.74$ ,  $\alpha=0.80$ ,  $\alpha=0.79$ ,  $\alpha=0.70$  이었다.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은 성별, 학년, 전공, 부모의 학

력, 부모의 직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예비조사는 남·녀 대학생 각각 5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월중에 실시되었다. 표집대상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44명이었다. 질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344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의  $\alpha$ 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중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56	45.3
	녀		188	54.7
학년	1학년		94	27.3
	2학년		93	27.0
	3학년		91	26.5
	4학년		66	19.2
전공	비사범계		238	69.2
	사범계		106	30.8
부모 학력	부학력	중졸이하	49	14.2
		고졸	148	43.0
		전문대졸이상	147	42.7
	모학력	중졸이하	66	19.2
		고졸	187	54.4
		전문대졸이상	91	26.5
부모 직업	부직업	전문직, 행정관리직	53	15.4
		농업, 생산직	81	23.5
		서비스직, 판매직, 기술직	99	28.8
		사무직	111	32.3
	모직업	취업주부	170	49.4
		전업주부	174	50.6
		합계	344	100.0

2.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

대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 차이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성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도 소재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혜윤(2001)의 연구에서 담당 과목의 차이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조사대상만 다를 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이제까지의 생물학적 성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개념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현상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모두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성차별적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구조 즉, 여학생은 현모양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학생이 188명으로 54.7%, 남학생이 156명으로 45.3%로 여학생이 약간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27.3%, 2학년 27.0%, 3학년 26.5%, 4학년 19.2%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비사범계열이 69.2%, 사범계열이 30.8%로 비사범계열의 분포가 높았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14.2%, 고졸 43.0%, 전문대졸이상이 42.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도 아버지의 학력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 중졸이하가 19.2%, 고졸 54.4%, 전문대졸이상이 26.5%이었다. 부모의 직업으로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전문직, 행정관리직이 15.4%, 농업, 생산직 23.5%, 서비스직, 판매직, 기술직 28.8%, 사무직 32.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취업주부 49.4%, 전업주부 50.6%로 나타났다.

처로 대변되는 가정 지향적인 여성으로, 남학생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성역 할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식은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에도 반영되고 있다. 여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도 의생활 교육내용을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실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법적인 성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활 교육내용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실제 생활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도 대부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단지 '편물과 자수' 영역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실제로 가정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에 따른 차이에서 비사범계열보다는 사범계열의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이 높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

〈표 2〉 인구통계적 특성변인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 차이

(n=344)

구분		양성평등의식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	
성별	남(n=156)	3.42	3.22	2.82	2.77	2.71	
	녀(n=188)	4.13	3.54	3.19	3.23	3.36	
	t	-12.75***	-6.83***	-6.00***	-6.69***	-9.40***	
학년	1학년(n=94)	3.59(c)	3.28(c)	2.90(b)	2.82(b)	2.99(ab)	
	2학년(n=93)	3.63(c)	3.35(bc)	2.90(b)	2.93(b)	2.92(b)	
	3학년(n=91)	3.94(b)	3.51(a)	3.20(a)	3.20(a)	3.18(a)	
	4학년(n=66)	4.33(a)	3.47(ab)	3.12(a)	3.20(a)	3.21(a)	
	F	3.83***	4.67**	6.36***	7.24***	3.26*	
전공	비사범계(n=238)	3.79	3.35	2.94	2.88	2.92	
	사범계(n=106)	3.94	3.49	3.21	3.34	3.38	
	t	-2.21*	-2.50*	-4.01***	-6.13***	-5.69***	
부모 학력	부학력	중졸이하(n=49)	3.62(b)	3.36(ab)	2.82(b)	3.03(b)	3.05(ab)
		고졸(n=148)	3.67(b)	3.30(b)	2.89(b)	2.82(c)	2.90(b)
		전문대졸이상(n=147)	4.07(a)	3.50(a)	3.19(a)	3.23(a)	3.23(a)
		F	25.64***	6.67***	11.25***	14.59***	8.02***
	모학력	중졸이하(n=66)	3.64(b)	3.35(b)	2.87(b)	2.88(b)	2.95(b)
		고졸(n=187)	3.68(b)	3.34(b)	2.98(b)	2.96(b)	2.98(b)
		전문대졸이상(n=91)	3.83(a)	3.55(a)	3.22(a)	3.26(a)	3.31(a)
F	51.90***	6.93***	7.98***	8.14***	7.82***		
부모 직업	부직업	전문직, 행정관리직(n=53)	4.14(a)	3.67(a)	3.34(a)	3.47(a)	3.49(a)
		농업, 생산직(n=81)	3.73(b)	3.27(b)	2.81(c)	2.78(c)	2.88(b)
		서비스직, 판매직, 기술직(n=99)	3.82(b)	3.36(b)	3.08(b)	3.01(b)	3.04(b)
		사무직(n=111)	3.78(b)	3.38(b)	2.97(bc)	3.00(b)	3.02(b)
		F	6.34***	8.09***	10.25***	12.22***	8.89***
	모직업	취업주부(n=170)	4.16	3.46	3.09	3.12	3.22
		전업주부(n=174)	3.52	3.33	2.96	2.93	2.91
t	12.21***	2.48*	2.04*	2.71**	4.05***		

\* $p<.05$ , \*\* $p<.01$ , \*\*\* $p<.001$

괄호안의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05$ )

사들이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의생활 교육내용도 더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의 차이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평균값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영역의 실천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보다는 중졸이하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졸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모의 학력수준이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의복의 선택과 착용' 영역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직업이 서비스직·판매직·기술직, 사무직, 농업·생산직 순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업주부 보다는 취업주부를 어머니를 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성평등의식은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인 어머니를 둔 경우가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주부를 둔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를 둔 가정에서 보다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실제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과 같은 문제는 여성, 어머니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가족원 모두가 각자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직업은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 실천의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워드법(ward's method)을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133명, 중간 집단은 145명, 낮은 집단은 66명으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앞으로 의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이제까지 의생활 교육에 대한 성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의 의생활 교육의 실천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은 4개 영역 모두  $p < .01$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선택과 착용' 영역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고,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영역의 실천이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 실천의식의 차이

(n=344)

의생활 영역	양성평등의식	높은집단 (n=133)	중간집단 (n=145)	낮은집단 (n=66)	F
의복의 선택과 착용		3.72a	3.47b	3.20c	33.46***
의복의 재료와 관리		3.43a	3.05b	2.88c	24.67***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3.54a	3.08b	2.94b	26.20***
편물과 자수		3.47a	3.18b	2.84c	24.11***

\*\*\* $p < .001$ ,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 < .05$ )

<표 4>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상관관계

구분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
양성평등의식	.45**	.36**	.32**	.38**

\*\* $p < .01$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상관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선택과 착용' 영역에서는 '나는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한다.', '의복의 재료와 관리' 영역에서는 '나는 옷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어 직접 관찰한 경험도 있다.',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영역에서는 '나는 단추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고 인식하여 손수 달아서 입는다.', '편물과 자수' 영역에서는 '나는 손으로 뜨개질이나 수를 놓아 만든 것이 기계로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생활 4개 영역 교육내용 중 '편물과 자수'영역에서는 '나는 손으로 뜨개질이나 수를 놓아 만든 것이 기계로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가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까지 연구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에서 바느질과 같은 기능중심의 교육이 여성만이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그에 따른 실천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교과 교육내용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기능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의생활 교육내용에 기능습득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신동순 외 4인, 1997). 의생활 교육내용 중 특히 손으로 바느질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내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강명희, 정영숙, 1990). 교육내용 수준의 적합성에서 의복제작(재봉)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실생활에의 활용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신동순 외 4인, 1997). 또한 의복구성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인식도 있었다(강혜정, 김용숙,

<표 5>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의 상관관계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		양성평등의식
의복의 선택과 착용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디자인과 색상을 평가하여 서로 잘 조화된 옷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41**
	나는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한다.	.42**
	나는 유행이 옷차림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며, 최신 유행 옷차림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먼저 잘 생각하고 판단한다.	.34**
	나는 여러 의복을 비교 평가한 후 될 수 있으면 실용적인 옷을 구입한다.	.38**
	나는 나의 얼굴과 체형에 맞는 의복 디자인을 주로 선택하여 구입한다.	.37**
	나는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는 옷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될 수 있으면 입지 않는다.	.21**
	나는 옷을 구입할 때 언제, 어디서 입을 것인가를 먼저 평가하고 구입한다.	.32**
	나는 상표 이미지보다는 계절에 맞고 활동하기에 쾌적한 옷을 주로 착용한다.	.31**
	나는 어떤 옷차림이 나은지 평가해보고 될 수 있으면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26**
의복의 재료와 관리	나는 옷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어 직접 관찰한 경험도 있다.	.33**
	나는 섬유의 혼용률, 조직, 가공방법에 대해 비교, 평가한다.	.28**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의 세탁방법을 알고 세탁한다.	.31**
	나는 세탁방법이 간편한 옷이 생활에 편리하다고 인식한다.	.24**
	나는 입고 벗은 옷은 반드시 손질한 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32**
나는 내 옷은 스스로 세탁하는 것이 가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22**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나는 의복 디자인의 원리를 알아 나와 타인의 의복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다.	.25**
	나는 도움이 되는 옷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22**
	나는 기회가 있으면 직접 내 옷을 만들어 기성복과 비교, 평가하고 싶다.	.25**
	나는 단추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고 인식하여 손수 달아서 입는다.	.29**
	나는 손바느질보다는 재봉틀로 바느질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평가한다.	.26**
나는 더불어 사는 환경을 고려하여 입지 않는 옷은 재활용한다.	.22**	
편물과 자수	나는 손으로 뜨개질이나 수를 놓아 만든 것이 기계로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44**
	나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손으로 뜨개질하고 싶다.	.37**
	나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들고 싶다.	.29**
	나는 의생활 관련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평가한다.	.22**
	나는 앞으로 의생활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어 준비하고 있다.	.33**

\*\*p<.01



1992). 부족한 수업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데에 싫증을 내었고,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일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과 학습을 연결하여 실천하는 능력은 부족하였다. 사실상 의생활에서 단순한 기능습득은 가정생활에서 당면하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미약했다.

또한 지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의생활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가치나 규범의 중요성을 조금은 무시하였다. 예를 들어, 바느질의 기능만 중시하는 식의 내용전개는 바느질 교육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또한 의복구성 실습은 1시간에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내심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노동의 즐거움도 함께 알게 될 것이다. 옷만들기는 학습과정에서 계획성, 창의성, 응용력, 실천력 등을 길러주고 한 벌이 완성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의복을 수증하게 다루려는 태도와 인내심 등 인간형성과 관계가 깊은 가치교육이다(신상옥, 1992). 더불어 의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는 다른 사람이 착용한 의복에도 관심을 보이게 됨으로써 기성복이 일반화된 현사회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안목을 길러주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모두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었던 일부지역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의식과 실생활에서 비판적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이제까지 의생활 교육을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1월중에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위해 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중 워드법(ward's method) 사용하여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은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법계열의 학생들이, 부모의 학력의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 취업주부를 어머니를 둔 경우가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 실천의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앞으로 의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과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과는 4개 영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생활 영역별 교육내용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선택과 착용' 영역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고,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영역의 실천이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보다 인간적이고 비판 실천적인 의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식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의생활 교육이 생활에 필요하고 매력있는 가정과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 자신이 자부심을 지니고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앞서야 할 것이다.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모두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성차별적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구조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

록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의식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의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생활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생활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양성평등의식, 의생활 교육내용 실천

## 참 고 문 헌

- 강명희, 정영숙 (1990).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 여 중고생의 학습관심도에 관한 연구 -의생활 내용 중 의복구성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 1-13.
- 강혜정, 김용숙 (1992). 전라북도 고등학교 가정·가사 과목의 서양 의복구성 교육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57-75.
- 교육부 (1994). 가정과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시다.
- 김수경 (1998). 로지카 파커. 혁명의 바느질: 자수, 그리고 여성 만들기.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10(1), 171-174.
- 김재춘, 왕석순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일록, 이은희 (2003a).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고등학생의 실천 의식 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1), 57-68.
- 박일록, 이은희 (2003b). 의생활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실천도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3), 89-103.
- 배은주, 이송자 (2005). 가정과에 적용한 양성평등 수업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1), 1-13.
- 신동순, 김상희, 오화자, 정효숙, 정혜경 (1997). 중학교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71-82.
- 신상욱 (1992). 의생활에 대한 가치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지, 29(4), 245-253.
- 왕석순 (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77-91.
- 온성숙, 이진숙 (1992).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31-41.
- 유가효 (1994).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7(1), 131-140.
- 이금남 (1993). 고등학교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과영역별 필요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남, 김행자, 안영희, 이남기 (1996).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10.
- 이은정, 신상욱 (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17-36.
- 이은희 (2003). 청년기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천의식 조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83-95.
- 인천광역시교육청 (2001).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지도자료.
- 임애용 (1993).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애용, 윤인경 (1994).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73-92.
- 정해숙 (2003). 중등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55-66.
- 정해숙, 유희정, 이홍림, 이순열 (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남녀 평등 의식 고취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정해윤 (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원 (1996).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29(1), 이화여자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 통계청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국여성개발원 (1999). 남녀평등의 이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연구(1).
- 한명희 외 (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

- 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황은 (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7-89.
- Colker, R (1987). *The Anti-Subordination Principle: Application*. D. K. Weisberg(ed.), *Feminist Legal The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Houston, B (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Vol. 35, No. 4. 359-369.
- Houston, B (1994). *Should public education be gender free?*. In Ston Linda(Eds.). *The Educational Feminism Reader*. New York : Routledge.
- Stoddart, T, & Turiel, E (1985). Children's concepts of cross-gend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6, 1241-1252.
- Vogel, L (1993). *Mothers on the job*. New Jersey: Rotgers University Press.
- Young, IM (1990). *Justices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05. 08. 19 접수; 2005. 10. 10 채택)